

# “IoT 기술로 ‘수돗물 깨끗한 영암’ 기대하세요”

### 영암군, 행안부 ‘공감e가득’ 공모사업 선정 첨단기술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생산

영암군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법이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영암군의 ‘적수(赤水, 녹물)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주관의 ‘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공감e가득은 디지털 기술에 주민참여, 민관협업 등을 더해 지역문제 해결과 활력 제고,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공모다. 영암군의 적수문제 솔루션은, 상수도 수질

분석에 IoT 기술을 도입해 영암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프로젝트. 시범지역 상수도에 센서를 부착해 탁도와 잔류 염소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오래된 수도관 교체 등 수질 정척의 근거 자료로 삼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다. 영암군의 해법은 서류심사, 1차 발표심사, 컨설팅, 최종발표를 거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디지털플랫폼 사업 및 학술연구용역 전문기관인 ‘솔루버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민간기관 등

과 함께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수요자 중심 문제해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사업 성공과 안심 수돗물 생산을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 안좌도 퍼플섬, 보랏빛 버들마편초꽃 2천만송이 활짝

신안군은 사계절 보라꽃이 오감을 자극하는 안좌도 퍼플섬에서 오는 10일 ‘2023 버들마편초꽃 봄축제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퍼플섬 버들마편초꽃 홍보 축제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버들마편초는 마편초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버들잎처럼 좁은 잎모양 형태와 긴 꽃대 끝에 꽃이 달려서 ‘마편’, 즉 말채찍처럼 생겼다 해서 버들마편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개화기간이 길어서 퍼플섬에 안성맞춤인 꽃이다. 현재 퍼플섬에는 3만 9000㎡ 부지에 전국 최대규모의 이천만송이의 버들마편초가 만개했으며, 해안산책로를 따라 퍼플섬 곳곳에 피어있는 버들마편초꽃은 섬을 일주하는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퍼플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보라색의 향연에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치유의 섬으로 간직되길 바란다”면서 “다시 찾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퍼플섬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퍼플섬에서는 오는 8월 버들마편초 여름 꽃축제, 9월 아스타 꽃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신안=이력주기자

### 목포시, 성숙한 반려문화 위해 ‘펫티켓’ 꼭 지켜주세요

목포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강화된 의무사항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것이 금지된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 야하는 공용 공간에 준주행이 추가되고, 소유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외출시 목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비롯해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일정 계도기간 후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적게는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동물보호감시단을 구성·운영해 공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펫티켓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 왔다. 또한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반려견 유기·유실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자 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영입장과 협업으로 동물등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축산농가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총력’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사업 등 폭염 예방대책 추진

함평군이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6월 안에 관내 30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지붕

열차단재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열 차단재를 지붕에 도포해 축사 내 열기 축적을 방지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열 차단재를 도포한 축사 내부 온도가

2~3℃ 가량 내려가 폭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온에 취약한 축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면역증강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환동 축산과장은 “올 여름 수시로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하고 축산 피해 예방 요령을 전파하여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 영광군, ‘청소년 플라마켓’ 성황리에 개최

#### 영광군, ‘청소년 플라마켓’ 성황리에 개최



영광군은 지난 6월 3일 청소년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플라마켓’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영광군이 주최하고 영광군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위원들이 기획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지역 청년단체 ‘누리보듬’의 청년 플라마켓 ‘뽕내보장’도 함께 참여했다. 청소년 플라마켓은 청소년들이 자원과 재능 나눔을 통해 사회적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준비한 행사로 14개팀의 청소년 셀러들이 학용품, 인형, 도서 등 중고물품 및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가지고 나와 판매에 참여했으며, 체험부스도 운영되었다. 또한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호랑이 태권도 시범단, 밴드, 댄스 등 11개팀의 청소년 버스킹 공연도 함께해 플라마켓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물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끼와 재능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군민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특기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및 토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353-102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푸른무안21협의회와 환경의 날 맞아 환경정화 활동

무안군과 푸른무안21협의회(상임의장 이남신)는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2일 무안읍과 삼향읍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제27차 UN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하면서 각국에 환경보전행사 실시를 권고했고 우리나라는 1996년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무안군과 푸른무안21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무안을 무안천 일대와 삼향읍 주요 도로변의 담배꽂초, 페플라스틱, 비닐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산 무안군수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운동을 벌여 무안의 깨끗한 이미지 확산시키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